월/요/광/장

김선정

2012년을 보내며

며칠 후면 2013년, 새해가 된다. 올해는 작년부터 시작된 광주비엔날레 전시 준비, 대학교 강의, 아트선재 센터의 전시들, 그리고 다른 기관들의 전시들로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다. 특히 9월 초에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와 아트선재센터의 '이불'전, 하이트 재단의 '풍경'전 등 세 개의 전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오픈하면서 시간이 훅 지나가버린것 같다. 이 전시들을 작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했지만 같은 시기에 세 개의 전시를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광주비엔날레와 아트선재센터의 전시는 새로운 작업을 작가들이 만드는 작품 제작과 전시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고 하이트 재단의 전시는 처음하는 기획하는 회화 그룹전이어서 쉽지 않았다.

큐레이터일을 90년대 초에 시작하여 2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회화 작업만을 가지고 만드는 기획전은 이전까지 큐레이팅을 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90년대 초 전시 기획을 시작할 당시부터 설치, 사진, 비디오 등에 관심을 전시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설치 등의 전시보다는 회화나 조각의 전통적인 매체를 주로 다루고 보여주는 시기였다. 대학에서 회화를 하는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좋은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 선생으로, 또 큐레이터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 하이트 콜렉션에서 '풍경'전을 기획하게 되었다.

풍경이라는 주제는 회화에서 보편적인 주제이지만 서양과 동양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출발점이 다르다. 주제가 가진 보편성을 작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매체적인 특성때문에 이미 여러 방식의 그리기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들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는지 그리고 그런 작가들의 작업을 실제로 볼 수 있게 하고 싶어 이번 풍경전을 기획했다. 전시를 만드는 방식에서 비디오나 사진 전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디오나 사진은 복제가 가능한 매체이기 때문에 전시를 위해 작업을 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는데 회화전시에서는 작업을 대여해서 전시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좋은 전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은 항상 가슴에 남는다.

전시를 만드는 과정 중에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 생각을 하고 전시를 만들고 싶다. 전시를 만드는 방법이나 형식, 형태들에 대한 실험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큐레이팅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 8월 말에는 한국예술 종합학교를 그만두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벗어나 젊은 작가들과 현장에서 활동을 시작한 큐레이터와 평론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 하지만 일들이 바쁘게 진행하니 언제나 뭔가에 쫓기듯이 살게 되는것 같았고 한가지 일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생각을 하던 중에 큐레이터 일을 더 집중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난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의 변화는 큰아이의 군입대이다. 올 초에 큰아이가 군에 간다고 해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다 겪게 되는 일이려니 하고 있었는데 자꾸 보고 싶고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

지난 11월 19일에 큰아이를 논산 훈련소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다. 여러 일로 바빠 아이와 군 입대전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 보니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입대전 날 머리를 짧게 자르러 같이 갔는데 머리가 잘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괜시리 눈물이 났다. 왜 그런지 머리를 짧게 자르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찡하게 느껴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훈련소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찾아보니 밝고 건강해 보여 안심이 된다. 아이에게 받은 짧은 편지를 통해 군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다. '통닭과 과자가 먹고 싶다'고 짧게 써있는 편지를 보면서 26일 훈련이 끝나고 받는 첫 휴가에 과자와 통닭을 사가지고 논산 훈련소에서 만날 날만 기다리게 된다.

2012년 여러 전시를 기획하는라 군에 아이가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다. 아이가 집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보고 싶다.

〈2012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이제 호남 역량 강화해 호남 인재 키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호남에서는 새로운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 인재를 키우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노무현'을 기대하며 문재인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몰표를 주었지만 돌아온 건 극도의 허탈감 뿐이다. 여기에 박 후보의 당선으로 그동안 인사와 경제 분야 등에서의 소외감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가 당선 가능성이 더 컸던 안철수 전 후보에게 지지를 더 보냈고, 차선책이었던 문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도 자존심의 문제이긴 했지만 덜 피해를 입자는 데 있었다. 안이든, 문이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영남정부임에 분명하다.

이제 호남은 수동적 선택이 아닌 적극적 선택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향후 10년, 아니 20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지역 인재를 키우는 길 뿐이다. '저쪽'보다 인구가 적다고 자위할 게 아니라 역량을 결집해 인물 발굴에 나서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호남이 키운 인물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치 쇄신과 선진화가 이제는 대세다. 안철수와 같은 인물이 호남에서도 나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치, 경제, 사회의 획기적 쇄신책을 내놓는다면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호남의 텃밭이라는 민주당도 패배에 대한 책임에 따라 범야권의 개편이 있겠지만 정치 쇄신 없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환골탈태해 전국 정당화로 가야 하는 이유다. 충남의 안희정 도지사, 강원의 최문순 도지사, 경남의 김두관 전 도지사 등이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를 통해 호남 인물의 대권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생물이 아닌가.

심야 난투극 벌인 한심한 순천 시의원들

순천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이 심야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여 한 사람이 크게 다치는 등 폭행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서는 21일 동료 의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순천시의회 주모(민주통합당)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0시30분쯤 순천시 연향동 G노래방 앞길에서 서모·신모 의원을 때린 혐의다. 그런데 이들이 길거리에서 난투극을 벌인 이유가 가관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 의원은 20일 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같은 당 소속 서모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날 순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벽면 페인트 도색비 2000만원과 폐쇄회로TV(CCTV) 설치비 3000만원 등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순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주 의원이 운영하는 A청과가 입주해 있다.

전화 통화에서 고성이 오고 간 두 의원은 21일 오전 0시5분쯤 순천시 연향동 G노래방 앞에서 마주쳤다. 서 의원에게 항의하던 주 의원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씨 등 2명을 불러 서 의원 폭행에 가담시켰다. 이들 3명으로부터 얻어맞은 서 의원은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 사건은 가해의원 개인 사업장의 예산삭감이 빌미가 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의원들이 조폭영화에나 나올 법한 폭력을 휘둘렀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순천시의회는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공식사과와 함께 엄격한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등 차제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의 예산심의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원만한 인품 만들기에 노력하자

주혜정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해는 얼마나 더 원만한 인품을 가꾸기에 공을 들였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 대나무는 마디를 만들며 성장해 가고 더 단단해 진다고 한다. 한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것도 새 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마디를 형성해가며 사람들 또한 성장하는 것 같다. 한 해를 보내며 참회하고 새 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75.8%의 높은 투표율로 12월 19일 대선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였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였으니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는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는 '많은 남녀 학인(學人)들을 지내 본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여 견실성(堅實性) 없는 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사람이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內心)이 견고하고 진실 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하여야 되리라'는 법문을 내려 주시며 원만한 인품을 가꾸기에 노력하라고 하셨다.

특히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유일한 여성 대통령이기에 관심과 기대도 또한 크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여성들의 특징이 대체로 주밀하나 고정하여 용납성 없는 것이 병이 된다고 하시며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하면 주밀한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노력하라고 하셨다. 우리나라의 지도자 또한 어머니의 품처럼 원만하고 관대한 지도자를 기대해 본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정은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다. 화목한 가정이 많을수록 나라가 화목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성은 가정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딸이자 며느리이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품으로 가정을 꾸려 간다면 화목한 가정이 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시대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물이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힘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강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부드러운 여성 대통령의 힘으로 강대국을 능히 감싸 안을 수 있는 외유내강의 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못지 않게 남성의 역할도 중요하다. 남성들은 내심이 견고하고 진실 되기에 노력한다면 개인의 인품도 진급되려니와 가정과 사회 국가의 진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 음(陰)과 양(陽)이 조화롭게 가정과 국가를 꾸려 간다면 엄부와 자모가 수레의 두 바퀴를 운전해 가듯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기는 어렵다. 항상 미완성인 채로 완성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사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고 마음공부의 과정이다. 새해에는 좀 더 성숙되고 원만한 인품으로 주위를 밝고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염원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원불교 신창교당 교무〉

법조칼럼

판결과 조정 사이에서

장찬수

각인각색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에 다툼은 어쩌면 필연일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에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지난 2년 동안 민사소송을 담당하면서 여러 다툼의 모습을 봐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해묵은 감정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이웃 사이에, 형제 사이에, 신앙공동체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물론 그 당사자들도 법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하면 모든 것을 승복하겠다고 법정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해묵은 감정이 쌓여 벌어진 사건이 칼로 두 도막을 내듯 풀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이 많다는 또 다른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다툼이 있는 소송에서 법원은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규칙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본 후 서로 양보함으로써 다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판결이 갖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조정이야말로 올 한해 화두였던 소통과 치유가 가장 잘 이뤄지는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법원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어찌 한 번의 만남과 소통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마는 너무 격하거나 과한 말로 어렵게 마련한 소통의 장을 닫는 일만은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시골에 사는 이웃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마련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이 원색적으로 다투는 것을 보았다. 이에 필자는 "원·피고 두 분이 모두 연세도 지긋하시니 여생을 생각하셔서 서로 양보하고 화해해 보셨으면"하고 권했다가 다음 조정기일에 한 당사자로부터 "판사님이 저더러 늙었으니 죽으라고 했지요"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졸지에 막말하는 사람으로 몰렸던 씁쓸한 기억이 있다.

그만큼 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맺힌 것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활을 멀리 쏘려면 그만큼 시위도 자신 쪽으로 더 당겨야 하듯이 화를 냄으로써 상대방이 받은 상처만큼 자신 또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과 같고, 다른 생물과 달리 사람이기에 얽힌 매듭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배웠다. 다툼의 해결을 통해 최종으로 이루려는 것이 행복이라면 극단적으로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마음의 앙금은 조금이라도 스스로 털어내는 것이 어떨까?

올해도 이제 거의 끝나감과 동시에 새로운 해가 오고 있다. 뒤는 이제 그만 돌아보시고 앞에 놓인 새 길을 보셨으면 한다. 나날이 춥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9단독 판사〉

난립한 지역축제 정비해 주민 위한 축제로 거듭나야

대한민국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일어난 축제 붐에 따라 지자체가 축제를 만들어낸 덕택에 200여 개 지자체에서 2000여 개 축제가 열린다. 미상불, 위지 동이전에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그리고 예의 무천 등 우리 축제를 '흰 옷을 즐겨 입고 가무를 좋아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팔관회와 연등회 같은 불교축제들도 융성했던 기록이 있다.

이렇게 축제를 좋아했던 민족을 일본제국주의가 민족성 말살을 주도하면서 헐뜯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노랫말을 인용하여 한민족은 '일은 팽개치고 맨 날 놀기만 좋아하는 게으름뱅이'로써 교화해야 할 야만적인 민족으로 몰아세웠다. 그래선지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 후 6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느닷없이 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돋아났다. 바야흐로 축제민국이 되었다.

그런데 우후죽순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의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 서양의 사육제, 브라질의 삼바축제 그리고 일본의 마츠리는 세계적인 축제다. 주민보다 관람객이 더 많다.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주민들이 주인공이다. 먹고 마시고 뛰고 춤춘다. 주민들이 놀고 관람객들은 본다. 그런데 우리 축제는 어떤가? 우리나라 축제는 주인공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나비축제, 인삼축제, 산천어 축제와 전어 축제들이 난무한다. 주인공이 나비와 인삼과 산천어들이다. 보고 먹고 마시는 관람객이 주인공이다. 축제가 아니라 장터다. 족보도 없다. 그런 틈바구니에서 정작 주인공인 주민들은 모자 하나 얻어 쓰고, 안내완장을 차고 관람안내를 하거나 쓰레기처리 등 뒤치다꺼리를 하는 게 고작이다. 그러고는 축제가 끝나면 지자체들은 직접 수입이 얼마며 홍보효과가 얼마라는 수치를 홍보하며 성공한 축제라고 나팔을 분다.

그나마 어느 지자체에서 성공한 축제 덕분에 지방세를 감면했다거나 수익을 몇 푼이라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전통을 추적하여 축제의 근본을 세우고, 상품 선전이나 관람객이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공동체 주민들이 흥겹고 신나는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

▲이가현·광주시 동구 산수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몬드라곤 신화

스페인 북부 바스크지방의 몬드라곤은 협동조합 운동으로 유명하다. 1956년 5명의 조합원이 설립한 석유난로공장이 효시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 등은 내전 후 주민의 80%가 떠난 황폐한 산골마을 몬드라곤에 아이들을 위한 기술학교를 세우고 졸업생과 함께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창업 초기부터 고통 분담을 통한 해고 없는 경영을 고수해왔다.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들은 매년 이익의 45%를 배당금으로 받는다. 인원감축이나 일시적 실업이 있더라도 정상화 이후 반드시 일터로 복귀시켰으며, 휴직 상태라도 월급의 80%를 지급했다. 실업기간은 대개 1년 이내였다.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2008년에도 한 명의 해고 없이 오히려 1만5000여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 주목받았다. 현재 전기·자동차·철강·유통·교육분야에 250여개 사업체가 있으며 연 매출 22조원, 고용 인원 8만여명의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을 지은 몬드라곤건설도 조합 산하에 있다.

19세기 중후반 생필품 소매시장의 지역독과점에 서구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협동조합이 경제민주화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맨체스터 공단에서 직공 28명이 만든 로치데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슈퍼마켓 상인들이 공동구매와 공동브랜드로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한 코나드(CONAD)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5명만 모이면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시장·정부 만능주의'가 실패한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는다.

광주·전남에서도 다문화가족 공연 봉사단체인 '다문화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수십 건의 설립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협동조합 모델이 풀뿌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